

# 高麗時代 雲住寺 石佛에 나타난 服飾에 관한 研究

광주대 의상학과  
조교수 안 명 숙

目 次	
I. 序 論	1) 通 肩
II. 雲住寺의 歷史的 背景	2) 偏袒右肩
III. 高麗石佛의 理論的 背景	VI. 結 論
IV. 石佛에 나타난 佛衣의 樣式 및 그 類型	참고문헌
1. 着衣法	ABSTRACT
2. 衣褶	

## I. 序 論

一般服飾史에서도 高麗時代는 거의 공백 상태로 되어 있을 정도로 자료의 부족으로 服飾의 맥을 잇기가 힘든 시기이다. 特殊服飾인 佛敎服飾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佛衣에 관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대상인 고려시대 雲住寺 石佛에 나타난 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석불도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佛衣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고려시대 佛敎에 나타난 복식을 일면이나마 고찰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佛像의 양식변천을 연구함에 있어 相好·佛身의 比例·光背와 臺座의 형식 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도 佛衣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佛像의 佛衣를 연구해 시대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며, 최근들어 불교 미술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이다.

佛像의 재료에 따라 鐵佛, 銅佛, 金銅佛, 石佛, 木佛, 泥佛, 塼佛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sup>1)</sup> 운주사

의 불상은 여러 무리의 석불로 돌이 재료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가지 표현의 기법상 특징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운주사 석불의 복식 특성이 고려시대 佛衣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겠다.

石佛이므로 服飾의 색이나 素材 및 섬세한 면 등은 알 수가 없었고,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로는 석불의 특성상 佛衣의 着裝法과 衣褶의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대단위이긴 하나 한 사찰에서 나온 것인 만큼 佛衣 형태도 비슷한 양식이 많으므로 고려시대의 佛衣를 총망라해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빈 연구를 계기로 더 깊은 연구가 된다면 바람직하겠

다. 연구대상인 석불들은 1991년 운주사 종합학술 조사<sup>2)</sup>를 보면 완형불상은 57체이고 불완전한 불상은 43체인데 이 중 불두편이 24체, 불신편이 16체 그리고 3체는 불두와 불신이 2분 또는 3분 되거나 일부만 남아있는 것이 각 1체씩이다.

이 중 몇체가 전남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2체는 유실되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는 확실하

1) 빛깔있는 책들 43, 석불, 대원사, 1989, p. 6.

2) 전남대학교 박물관, 운주사종합학술조사, 1991, p. 64.

게 복식을 알아볼 수 있는 완형불상 52체와 佛身 중 복식 표현이 충실하게 된 10체를 대상으로 하여 석불들의 복식 유형과 그 종류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석불상들이 비·바람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어 가고 있어 석불의 정확한 복식 형태를 아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 크다 하겠다.

本 研究의 目的은 운주사 석불을 통해 고려시대 佛像의 佛衣 양식과 형태를 규정지어 보고,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佛衣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은 佛衣에도 나름대로 시대적인 유형이 있으나 고려시대는 그것조차 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계기로 高麗時代 佛衣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이 되었으면 한다.

## II. 雲住寺의 歷史的 背景

本 研究의 대상인 雲住寺의 위치는 全羅南道 和順郡 道岩面 大草里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312호로 지정된 사찰로, 雲住寺의 創建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道詵國師가 우리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民物을 편안히 하고자 세웠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풍수지리설에 운수사는 배(腹)에 해당하므로 千佛千塔을 세워 裨補鎮壓하여 우리나라의 운세가 일본으로 흘러 가는 것을 막고자 도선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道力으로 천불을 세워 사공으로 삼고 천탑을 노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운주사를 창건하였다<sup>3)</sup>고 전한다.

운주사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들은 생생하게 지금까지 면면히 전해지고 있으며<sup>4)</sup>, 羅末까지 소급되지만 最古의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雲住寺在千佛山 寺之左右山背 石佛石塔 各一千 又有石窟 二石佛相背而坐』라 기록되어 있을 뿐 언제 누가 창건했다는 기록은 없다. 운주사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石佛石塔의 양식으로 보아, 그 조성은 늦어도 11C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주사는 조선중기 이후부터 廢寺가 되었고, 이 사찰의 퇴락 및 불교신앙의 약화와 아울러 천불천탑 역시 많이 파괴되고 없어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다.

평지와 야산 측면의 암벽 위 아래와 석탑과 석불이 산재되어 있으며, 석불은 岩石 下部가 우묵하게 잘리어져 자연적인 龕形을 이루고 있는 곳에 數軀씩을 안치하였으며 간혹 산기슭 평지에도 안치하고 있다. 불상을 보면 각각 一枚의 돌을 이용해 앞면 만을 조각하여 입체감이 없는 평판상의 불상을 만들어 그 제작수법이 매우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다.

운주사 석불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sup>5)</sup>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41년에는 박형진씨에 의해, 1979, 1984년에는 성춘경씨에 의해, 1990년에는 이태호씨에 의해 조사 정리되었다. 조사된 石佛의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운주사 석불유물 현황

1941년 조사 (박형진 씨)

計	臥像	坐像	立像	不明
71	2	5	46	18

1979년 조사 (성춘경 씨)

計	臥像	坐像	磨崖佛像	立像	其他
70	2	3	1	44	20

1984년 조사 (성춘경 씨)

- 완전한 것 -

計	臥像	坐像	立像	磨崖佛像
53	2	9	41	1

1990년 조사 (이태호 씨)

計	臥像	坐像	磨崖佛像	立像	不明
91	2	10	1	56	22

3)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3책, 운주사, 1984, p. 1.

4) 성춘경, 전남의 문화재에 대한 고찰(上), 금호문화 5·6월호, 1983, pp. 67-68.

5) 상계논문, pp. 66-67.

### Ⅲ. 高麗石佛의 理論的 背景

신라 下代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통일한 고려 왕조가 창립되면서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으며 이에 따라 불교는 새로운 왕조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민중의 종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불상조각 역시 신라 말기의 형식화되고 무기력하였던 기운을 씻고 새로운 造像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식적으로 보면 9세기 부터 일어난 선종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유행하였으므로 불상은 새로운 양식으로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sup>6)</sup>, 특히 석불의 제작은 크게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창업기인 10세기에는 신라 말기의 형식화된 석불조형 양식에 규모만이 커진 거대한 석불이 만들어졌고 이후 11세기에 들면서 차차 규모가 작아져 양식은 물론이고 조각수법에도 형식화의 경향이 짙어졌을 때 12세기에 이르러 각 지방적 특색이 나타나 이곳 운주사에서도 이렇듯 농후한 실례를 많이 볼 수 있다.<sup>8)</sup>

한편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불상군의 유행은 본 연구의 대상인 운주사 석불들 외에도 충청도 지역에 산재한 대형의 석불과 강원도 병주 지방을 중심으로 조성된 일련의 석불들도 이 시대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시대의 석불조형은 순수한 지방세력 내지는 민중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경우 그 지방민의 발원에 의하여 석불이 조성되었다고 믿어지며 이러한 경우가 오히려 고려시대에 있어서 석불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각기법이 서투르며 섬세한 면은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이 민족의 소박하고 정성어린 숨씨가

엿보이며, 지나치게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범한 내면성을 추구하여 격식은 갖추었으나 부처님 초차도 점잖은 할아버지나 풍채 좋은 시골 영감님 같은 인상을 풍긴다.<sup>9)</sup>

고려시대 불교미술은 최근에 와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특히 고려시대 불교양식은 통일신라 시대에 가졌던 理想美 즉 통일신라의 최성기 작품인 석굴암의 본존불이나 불국사의 兩塔에서 볼 수 있는 이상주의적 표현에서 탈피하여 편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sup>10)</sup> 이러한 현상은 불교미술의 토착화로 볼 수 있으며, 이 시대는 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운주사에 표현된 복식도 보면 세련미나 이상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투박하면서도 형식적이며 도식적인 의습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고려시대의 투박한 토착화 현상이 아닐까 한다.

### Ⅳ. 石佛에 나타난 佛衣의 樣式 및 그 類型

本 研究에서 雲住寺의 62개의 石佛을 대표적인 몇가지 服飾 類型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전체적인 佛像의 특징을 보면 고려시대가 호국불교였고 불교가 융성하였던 것과 비례한다면 불상의 표현도 많이 발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前代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신라 시대 불상의 세련대고 우아한 표현은 모두 사라지고 불상의 표현에 있어 거칠고 투박하며 전체적인 像의 분위기도 우직하며 토착적인 고려인을 연상케한다.

우리나라 佛像의 佛衣를 알아보기 전에 인도의 간다라 지방과 마투라 지방의 佛衣를 살펴보면 간다라는 그리스 神像과 유사한 의습 표현으로 法衣는 두껍고, 초기에는 통견이 나타나나 후에 마투라불의 영향으로 편단우견이 나타나고, 마투라

6)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3책, 운주사, p. 18.

7) 빛깔있는 책들 43, 석불, p. 102.

8)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3책, 운주사, p. 19.

9)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의 박물관 20, 한국일보사, 1988, p. 111.

10)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6, p. 287.

는 法衣는 얇고 편단우견이며 중기 이후에 통견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佛像의 佛衣 着衣 양식은 삼국시대로 올라갈수록 즉 이른 시기일수록 偏袒右肩像은 드물고, 通肩像이 주를 이룬다.<sup>11)</sup>

그러므로 삼국시대에는 주로 通肩으로 착장하고 衣褶 표현도 두꺼웠으며 옷주름은 左右대칭으로 표현되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偏袒右肩이 많아지고 衣紋은 좌우대칭의 양식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지나<sup>12)</sup>, 통일신라시대 때에도 통견상이 편단우견상 보다 많았다.<sup>13)</sup> 그러나 고려시대 佛衣는 일관성 있는 어떤 양식이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계기로 앞으로 고려시대 불상에 나타난 계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불상에 표현된 佛陀의 의복으로는 위에 掩掖衣와 아래에 裙을 입고 그 위에 大衣를 걸치는 것이 일반적인 격식이다. 엄액의는 속에 입는 것이므로 표현이 되지 않아 잘 알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겉옷인 大衣와 裙에 나타난 衣褶과 着衣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着衣法

法衣의 着衣法에는 偏袒右肩과 通肩으로 착장하는 방식이 있다.

편단우견 착의법이란 장방형의 포를 오른쪽 어깨에는 덮지 않고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돌려서 왼쪽 어깨 위로 넘겨 입는 방법이고, 통견 착의법이란 한쪽 끝을 背後로부터 왼쪽 어깨 위로 넘겨 고정시킨 후 다른 한끝을 오른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덮어 다시 왼쪽 어깨 위로 넘겨 입는 방법이다.

운주사의 불상들이 석불이므로 거칠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걸치는 방식을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편단우견과 통견으로 착장한 것만은 확실하다.

보통 불상의 경우 두가지 착의법 중 한가지로 표현되는데 운주사의 석불은 총 62체의 불상 중 편단우견이 44체, 통견이 13체이며 확실한 착장법

을 알 수 없는 것도 4체가 있는데 이중 2체는 어깨에 주름 표현이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몸통에 표현된 의습으로 보아 편단우견 착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특이한 것으로 편단좌견을 한 불상도 1체가 있다. 그러므로 운주사 불상에 의하면 고려시대 불상은 통견 보다 편단우견을 많이 착장했다고 생각된다.

像의 자세에는 立像과 坐像 두가지가 있는데 경전에 “법당에 안치하는 상은 반드시 좌상으로 해야 한다. 휴식하는 상은 좌상 또는 와상으로 해야 한다. 행동하는 상은 반드시 입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경전에는 立像·坐像·臥像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불상을 조성하는데 있어 어떤 자세가 좋고 나쁘냐는 문제가 아니다.

운주사의 석불은 62체의 불상 중 좌상이 11개이며 입상이 51개 이고, 11개의 좌상 중 통견이 7개 이고 편단우견이 4개이다.

여기서 보면 좌상의 경우는 통견이 많고, 편단우견의 경우는 입상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 뿐 아니라 불상의 원산지인 인도의 Mathura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sup>14)</sup>이 나타난다.

### 2. 衣褶

佛像의 衣褶을 通肩 着裝時와 偏袒右肩 着裝時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또한 특이한 것은 보통 法衣의 착장법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편단우견과 통견이 있을 뿐인데, 운주사 석불에서는 偏袒右肩이 하나 있다. 이는 불상을 조각하는 사람이 잘못하였거나 입는 사람이 잘못 입었을 경우이고 아직까지 편단좌견상이 조성된 예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坐像의 경우는 거의 裙의 표현이 되지 않았으나 立像의 경우는 裙의 표현이 된 것과 되지 않은 것 또는 조성 당시는 裙을 표현 했으나 현재는 없는 것 등이 있다.

法衣의 衣褶 표현은 같은데 裙의 표현에 따라

11) 황수영·정명호, 『井邑『부처당이』石佛立像 二軀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 7, 1983, p. 38.

12) 빛깔있는 책들 40. 佛像, 대원사, 1991, p. 95.

13) 안명숙·이춘계, 佛像을 통해 본 統一新羅時代 佛衣에 관한 연구, 동국대 논문집 27집, 1988, p. 636.

14) 안명숙, Mathura 불의 양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권 1호, 1988, p. 5.

전체적인 의습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裙에는 별다른 특징 없이 거의 수직선의 옷주름 형태만을 타나냈으므로 여기서는 裙의 모습을 제외하고 법의의 유형을 몇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겠다. 裙을 어떤 경우는 입고 어떤 경우는 입지 않아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겹에 걸치는 法衣가 큰 경우는 몸을 많이 감싸므로 裙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 法衣의 크기에 따라 裙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작게 나오기도 했던 것 같다.

### 1) 通肩

佛像의 자세에 상관없이 通肩으로 착장한 불상은 모두 13개가 있으며, 이 중 坐像이 7개·立像이 6개 있다.

#### (1) 通肩坐像

통견좌상의 의습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의습이 있다.

첫째는 옷주름이 U자형(圖1)으로 된 것으로 대부분의 통견좌상이 이 옷주름 표현을 하고 있다. U자형도 입상의 경우는 서 있는 像이므로 아래부분까지 U자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좌상의 경우는 가슴부분에서는 완전한 U자형이나 배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수평선에 가까운 파상형(圖2)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표현은 像의 자세에 따른 사실적 표현인 것 같다.

두번째 독특한 옷주름 표현으로 편단우견 좌상의 경우도 하나 있는데, 이 의습 표현은 손으로 인해 가슴 부분이 가리워져 있어 정확한 의습 유형은 알 수 없으나, 손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圖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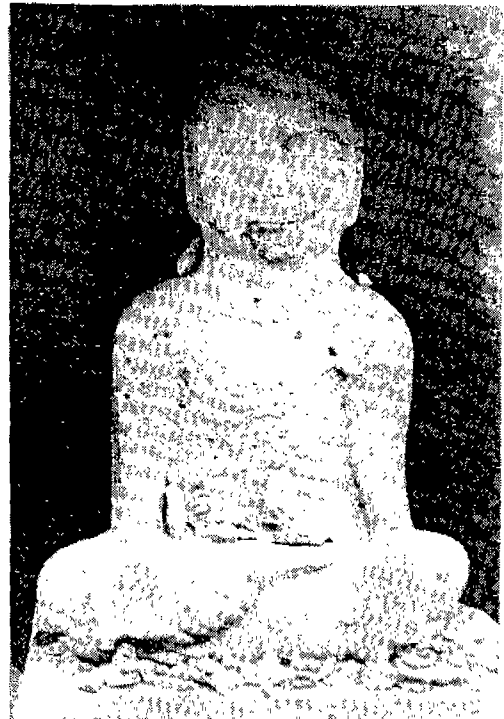
#### (2) 通肩立像

통견입상도 좌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의습이 있는데 첫째는 U자형 의습으로 좌상의 경우와는 달리 가슴 부분에서는 V자형 같은 표현이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U자형을 이루는 옷주름으로 자연스런 U형 의습이다(圖4).

또한 이런 옷주름의 변형으로 사실적 의습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의 발밑 부분에서만 U자형 주름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圖5). 두번째는 편단우견 의습 형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옷주름이다(圖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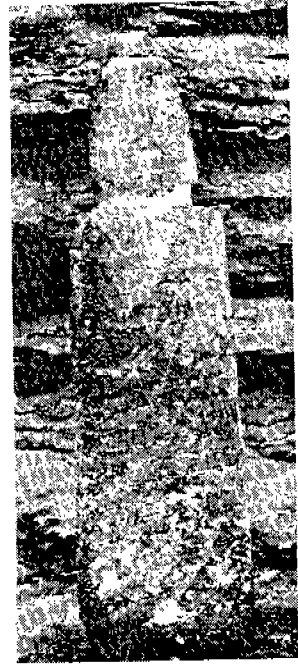
(圖 1) 通肩坐像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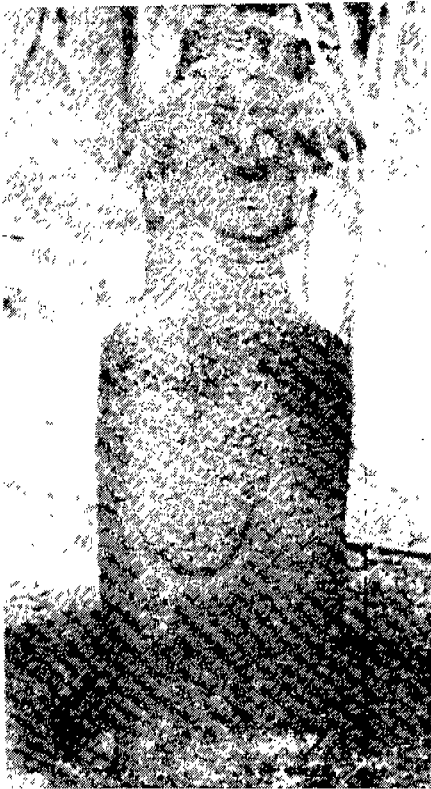
(圖 2) 通肩坐像 2



(圖 3) 通肩坐像 3



(圖 5) 通肩立像 2



(圖 4) 通肩立像 1



(圖 6) 通肩立像 3

2) 偏袒右肩

편단우견으로 法衣를 착용한 불상은 모두 45개가 있으며 이 중 坐像 4, 立像 41개로 운주사 석불 중 편단우견입상이 가장 많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1) 偏袒右肩坐像

이 경우의 의습은 어깨 부위와 소매 및 발 부분을 제외한 몸통 부분의 의습 표현이 되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이것도 분명히 두가지 부류의 의습인 것은 확실하다. 첫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편단우견인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배 부분의 의습이 남아 있는 자세로 인해 표현되지 않아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두번째는 통견좌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의습으로 손 부분에 의습이 집중된 형태이다.

(2) 偏袒右肩立像

위낙 여러개의 불상이 나와 옷주름의 표현도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오직 한가지 형태만 나온 것도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 끼리는 목로 한개의像만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외시켜서 41개의 불상을 크게 분류해 보면 5가지 유형의 법의 의습이 나온다.

이 중에서 많은 數의 의습이 나온 순서대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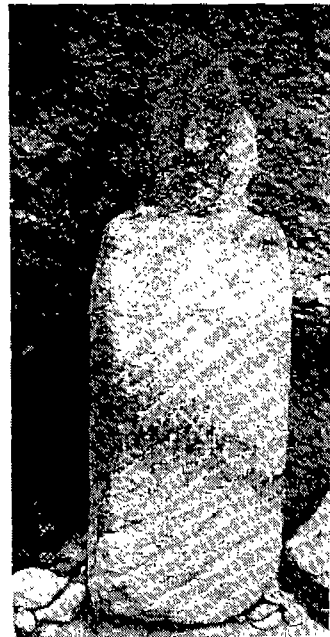
① 편단우견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런 의습으로 옷주름의 흐름이 완만하나 급하나에 따라 부드럽게도 보이고 딱딱한 느낌도 주고 하는 차이일 뿐 거의 같은 형태로, 여기서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裙을 표현했느냐(圖 7) 아니냐(圖 8)에 따라 전체적인 像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 裙의 표현 有無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法衣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法衣만 설명한다면 두가지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입상의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의습 표현으로 사실적인 표현이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插圖 1)과 같다.

② 이 경우의 옷주름은 다른것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옷주름으로, 실제 옷을 착용했을 때 이러한 의습이 나타날 수는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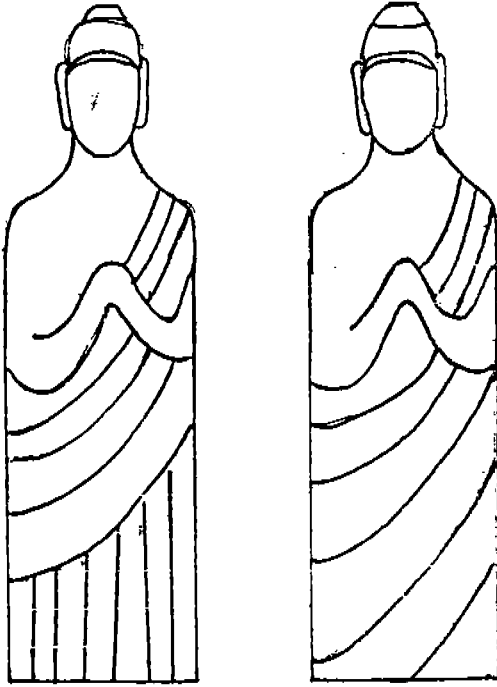
운주사 석불들의 명칭이 부처인지, 승려인지, 보살인지, 신도인지 정확하지가 않으므로 안에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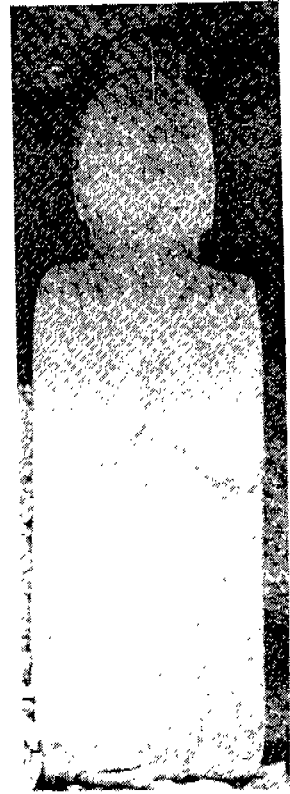
(圖 7) 偏袒右肩立像 1



(圖 8) 偏袒右肩立像 2



(插圖 1) 衣褶의 圖式化



(圖 9) 偏袒右肩立像 3

은 옷이 掩腋衣와 裙 뿐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袍를 입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法衣의 유형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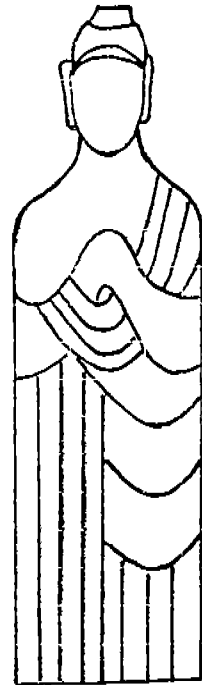
이러한 의습(圖 9)은 안에 긴 포로 된 옷을 입고 그 위에 왼쪽 어깨 위로만 법의를 걸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습이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插圖 2)와 같다.

③ 이 부류는 U자형 의습으로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위는 다른 편단우견과 같은 형태의 주름으로 허리 이하부터 U자형을 이룬 의습(圖 10)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적으로 U자형 흐름을 나타내는 의습(圖 11)으로 통일신라시대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圖 12)의 경우에도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역시 통일 신라시대의 영향을 받은 의습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견에 나타난 U자형 의습과는 다른 형태이다.

④ 이 부류의 衣褶도 裙의 有無와 손의 위치에 의해 의습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나, 裙의 표현을 무시하고 손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결국은 같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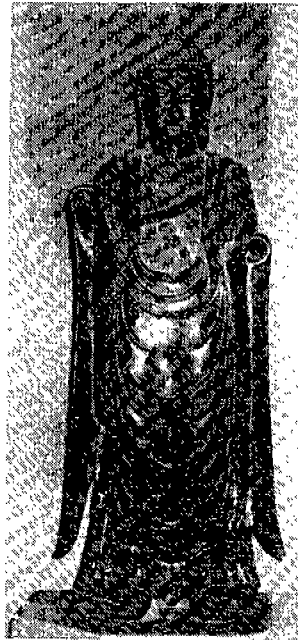


(插圖 2) 衣褶의 圖式化





(圖 10) 偏袒右肩立像 4



(圖 12) 柏栗寺 金銅藥師如來立像(국립경주박물관장)



(圖 11) 偏袒右肩立像 5

태의 의습이며 같은 착의법으로 법의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무릎 부분에 각각 U자형의 의습(圖 13)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습 표현은 통일신라 시대 3기의 佛衣 중 2기 甘山寺 계통의 佛衣가 변형된 것으로, 이것을 優曇王像式 佛衣 표현이라 부르며 그 형태는 주로 통견의 법위가 가슴 위로 여러개의 U자형의 주름을 이루면서 내려오다가 넓적다리 부분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이어서 각기 두다리 위에서 서너개의 곱은 주름을 형성하고 다시 연속적인 U형 주름이 좌우대칭을 이루는 것<sup>15)</sup>인데, 이와 똑같지는 않으나 이것이 변형되어 이루어진 의습인 것 같다.

이衣褶과 이와 비슷한 계통의衣褶을 그림으로 표현하면(插圖 3)과 같다.

⑤ 어깨부위는 편단우견을 나타내고, 허리 이하는 직선의 의습을 나타내는 것(圖 14)으로, 法衣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袍를 길게 입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불의 표현도 아주 드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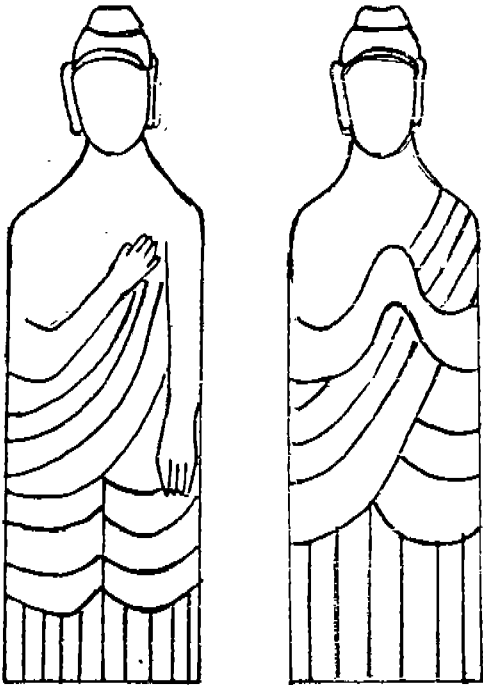
15) 金理那, 新羅甘山寺 如來式佛像의 衣文と 日本佛像との 關係, 불교예술 110, pp. 3-4.



(圖 13) 偏袒右肩立像 6



(圖 14) 偏袒右肩立像 7



(挿圖 3) 衣褶의 圖式化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衣褶들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아무리 고려시대의 불상조각이 퇴화했느니해도 佛衣 표현에 있어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과장된 아름다움 보다 사실성 있게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着衣法에 있어서는 편단우견 착의법이 통견 보다 많이 착용되었고 특이한 것으로 편단좌견상이 하나 있었으며, 의습에 있어서는 통견의 경우는 U자형 의습과 자연스런 의습 표현이 많았으며 편단우견의 경우는 좌상의 경우는衣褶 표현을 대부분 알 수 없었고 편단우견 입상의 경우는 다양한 의습이 나타났다. 즉 자연스런 drapery 옷주름과 U자형 의습, 직선형의 의습, 신라 감산사 계통의 의습으로 양무륜에 좌우대칭의 U자형 의습, 마지막으로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긴 袍 착용 후 그 위에 法衣를 걸쳤을 것 같은 의습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佛像을 조각하는 사람의 습씨나 보는 사람에 따

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통일신라 시대의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과는 다르나 그것을 계승하여 토착화시켜 조성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불상을 조각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고, 佛衣에 대해서는 사실성 있게 표현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오히려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잘못 나타난 것도 있으며, 문외한이다 보니 불교미술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운주사 석불로만 고려시대 佛衣를 총괄할 수는 없고 이것을 통해 佛衣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맥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고려시대 佛像과 연결시켜 연구함으로써 고려시대 佛衣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參考文獻

1.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의 박물관 20, 한국일보사, 1988.
2. 김리나, 新羅甘山寺 如來式佛像의 衣文と 日本佛像との 관계, 불교예술 110.
3. 김혁정, 화순 천불동의 석불과 석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4. 빛깔있는 책들 40, 佛像, 대원사, 1991.
5. 빛깔있는 책들 43, 石佛, 대원사, 1989.
6. 성춘경, 全南의 文化財에 대한 고찰(上), 금호문화 5·6월호, 1983.
7. 전남대박물관, 고적조사보고 3책, 雲住寺, 1984.
8. 전남대박물관, 운주사 종합학술조사, 1991.
9.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6.
10. 안명숙, Mathura 佛衣의 양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권 1호, 1988.
11. 안명숙·이춘계, 불상을 통해본 통일신라 시대 佛衣에 관한 연구, 동국대논문집 27집, 1988.
12. 한림과학원, 한국미술사의 현황, 예경출판사, 1992.
13. 황수영,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1989.
14. 황수영·정명호, 井邑 『부처당이』 石佛立像 二軀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 7, 1983.